

November 5, 2020

존경하는 동료교수 여러분,

오늘 교수협의회 3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원격으로 참석하신 회원들과 추운 날씨에도 직접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협을 대표해서 바쁘신 일과 중에도 시간을 내 주신것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인류사에서 2020년은 우리사회의 근간으로 자리잡아 온 패러다임을 변화하도록 만든 중요한 시점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비단 의료바이오는 물론 경제, 문화, 정치, 과학 및 기술의 전 영역에 걸쳐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어느새 우리 일상의 표준으로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에 반해, 동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인간의 기지는 과거에는 상상해 그쳤을 virtual reality 를 부지불식간에 우리로 하여금 익숙하게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정기총회가 온라인으로 중계되면서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증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online 연결로 학생들 원격수업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공동연구자와 보다 자주 원격접촉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한국이 COVID-19에 대한 훌륭한 대응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새롭게 role-model 국가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에 교협의 연차계획에는 2가지의 중점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캠퍼스내에서 음식질을 향상하고자 ‘식생활 Task Force’를 가동하는 것이고, 둘째는 학과내 학부를 뛰어넘는 social gathering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캠퍼스 음식질을 가시적으로 업그레이드한 대책을 실행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두 번째 사항은 교내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 정부의 규제등으로 인해 계획을 두어차례이상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백신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을 볼 때, 당분간은 대규모의 social gathering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되면, 교협에서는 계획했던 social gathering에 모두 함께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특별히 social gathering을 할 수 있게 되면, socializing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UNIST 내에서 학제간을 뛰어넘는 agenda에 집단지성을 동원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이런 기회가 우리곁에 다가오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의 순서는 교협총괄이사 김재업교수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ar Fellow UNIST Professors,

Welcome to the 3rd General Assembly!

First of all, I appreciate your coming to the meeting room, as well as joining us remotely.

On behalf of UFA, we thank you all for setting aside your busy schedule for the general assembly.

In modern history, the year 2020 will be remembered as a pivotal time to change the paradigm of all the societal foundations that have been established for economy, culture, politics, science and technology, let alone medical biology. As we all know, the COVID-19 pandemic has forced us to keep ‘social distancing and mask-wearing’ a new norm in our daily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 ingenuities of our contemporaries have already led us to adapt ourselves to virtual reality much faster than one might have imagined in the past.

Indeed, the UFA general assembly itself manifests the newly created venue, where our on-site meeting is being broadcast and we are relying on the integrity of online communication channel. In fact, this type of online connection has become a routine even in our classrooms, which helps us more frequently cooperate with our colleagues in different format. Interestingly, Korea has emerged as one of the role-model countries in a global society due to the effective response against the COVID-19 challenges.

Last March, the UFA yearly plan was laid out and released with two key action items. One of them was to launch ‘Food Quality’ Task Force in order to enhance the food quality in our campus, and the other was to initiate ‘social gathering’ that could help us get together beyond one department or college. Regarding the first item, UFA has made a tangible progress in upgrading the campus Food Quality, which will be debriefed separately. However, regarding the second item, we had to keep postponing a campus-wide social gathering a few times due to a concern about our safety and health, as well as due to a strict government restriction. Given the slow progress to develop a vaccine against coronavirus, we may need to remain prudent about a large-scale, social gathering for the time being. Nonetheless, as soon as a proper time will be identified, UFA will invite all the members to get together at social gathering. Surely, this will help us not only engage socializing but also bring a fresh momentum to exercise our collective intelligence for cross-disciplinary agenda.

Hopefully, such happy moment comes to us sooner rather than later.

Today, the rest of the meeting will be led by Professor Kim, Jaeup, General director of UFA.

Closing Remarks

정관개정안을 승인해 주신것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안에 따라 교협운영회는 조만간에 추가로 이사를 선정할 수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모임을 마치기 전에, 2021년에 중점진행할 사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0년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킨 캠퍼스 음식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monitoring해서 음식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새롭게 ‘주거환경 TF’를 발족시키겠습니다. 지난해에 식생활 TF를 시작할 때, 학생들은 주거환경이 교수님들에 비해 훨씬 열악하고 개선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식생활 개선보다 주거환경개선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 답변은 일단 식생활개선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 이를 통해 훨씬 복잡한 주거환경개선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을 주지시켰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교협내에 주거환경개선 TF리더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마도 retention rate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거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agenda가 있으시면, 교협에 알려주시고, 좋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social gathering이 조만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좀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의견수렴과 교수님들 간의 공동협업을 모색하는 길을 찾아 보겠습니다.

아울러, 교협은 최근에 학제구조개편에 따른 변화를 지속적으로 monitoring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확인된 다양한 issue를 학교측에 개선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협에 다양한 issue와 제안을 주시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학교측에 전달하고 개선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교수님들의 교육과 연구에 신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인용균드림

Thank you so much for approving the by-law revision.

Now, according to this revised by-law, the UFA cabinet will be reinforced by additional representatives in the near future. Before closing this meeting, I'll briefly talk about what we will focus on in 2021.

As we have successfully upgraded the campus food quality, we will keep monitoring the progress of Food Quality on a regular basis. At the same time, we will launch a new 'Living Condition Task Force' as the primary focus. When we started the Food-Quality TF last year, we realized that students were in a dire need of 'better living conditions', as much as faculty members. In fact, they were more interested in enhancing the living conditions than upgrading the food quality. At that time, we mentioned that a successful experience of Food-Quality TF will help us work together even for living condition TF. In the near future, we will find a new Living Condition TF leader who will spearhead this important issue that is thought to be a big factor for retention rate of students and faculty. Should you have some specific agenda regarding Living conditions in school, please provide us with your thoughts and opinions and we'll take them seriously.

Considering the social gathering may not be readily available soon, we will seek for some more creative avenues to enhance the communications and cooperation among faculty members.

Also, I assure you that UFA has been closely monitoring various changes related to the newly restructure school system. Although we did not explicitly discuss what these things are here, some of the recently identified issues have been addressed with the school.

So, please keep us informed of any issues and suggestions and UFA will be a conduit of your voices.

May God bless you, and your works in education and research!

Sincerely,

Yongkyoon In

2nd President of UFA